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님께,

기적

살롬 ស្រីសុខសាន្ត កម្ពុជា កម្ពុជា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어느덧 우기가 되어 종종 비가 내립니다. 올해는 유독 더운 날씨였기에 비가 올 때마다 더 시원하고 은혜를 입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루가 달리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물 한방울 흠 한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로 창조주를 생각하게 하고 그 아래 겸손하게 하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지난 6월 9일 남미 콜롬비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40 일동안 생존했던 네 아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큰 아이가 열 세살, 막내가 11 개월 이었다니, 독초와 독충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하며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 소망하며 구조작전명을 소망 Hope 이라 불렀습니다. 밀림 곳곳에 음식상자를 떨어뜨리고, 움직이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아이들 할머니의 음성 녹음을 하늘에서 쉬지않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40 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아이들을 찾아나서 지난 9일 네 명의 아이들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소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복음은 그 시작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우리에게 새 삶과 살아갈 목적을 주었으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니,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매일이 또한 기적과도 같게 됩니다.



캄보디아 제자교회 ក្រុមប្រឹក្សាប្រតិបត្តិ ម៉េដ ក្រុមប្រឹក្សាប្រតិបត្តិ ម៉េដ ក្រុមប្រឹក្សាប្រតិបត្តិ 에도 기적과 같이 함께하셨습니다. 올해 초 정지웅 선교사의 후임으로 세워진 리 분타 Ly Buntha 선생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안수받은 일꾼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4년간 제자교회에서 성도로, 성경교사로, 사역 동역자로 성장했으며,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공유하고, 성도들과 삶을 나눠 온 후임자로, 캄보디아 교회와 성도를 향해 저희 선교사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주일에, 반년 동안의 정지웅 선교사와의 동사 목회를 잘 마치고, 담임 목회로 온전히 위임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사역자이고, 기적과 같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기적과 같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였고, 온 교회와 성도들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4일 아침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임하셨고, 온 성도들은 그 안에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과, 네 명의 안수집사 가정, 그리고 그 중심에

세우신 리 분타 목사님 가정을 보며, 큰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숭고한지,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며 큰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이룰 위해 이곳에 보내사 우리가 살아온 지난 12년 반이, 누구보다도 저희 삶에 얼마나 큰 영예요 축복이었는지 또다시 깨달으며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던 중, 저희 부부는 미리 알지 못했던 특별한 시간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리 분타 목사님과 꺄리안 집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저희 부부에게 감사를 표하며 무릎을 꿇고 저희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어 저희를 축복해주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진실로 저희에게 과분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영 선교사도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로 왔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받았음을 언제나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후 리 분타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신실한 주의 종을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저 말씀을 듣는 캄보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보며, 또다시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저희 가정은 지난 12년 반 동안의 캄보디아 선교를 마무리하고, 7월 중순에 파송교회<sup>워싱턴성광교회</sup>로 돌아가서, 정지웅 선교사는 부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2010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동안 안식년 없이 캄보디아 성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으며,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저희 모두를 형제 자매로 만들었고, 저희 부부도 성도 모두 행복을 누리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더욱 깨달아가며, 다같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성도들과 헤어지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사역자와 성도들을 통해, 저희 안에 교회에 대한 걱정은 없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동역해주신 모든 시간과, 기도와 사랑에 언제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요 축복이며, 기적이십니다. 이제 리 분타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제자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 분타 목사님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모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깊고 큰 종으로 무한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맡겨주신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일으키고 성도들을 사랑과 기도로 목양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리 분타 목사님이 이후 캄보디아와 열방에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교회의 네 명의 집사<sup>찌보완, 꺄리안, 위짖, 우뎀</sup> 가정을 교회의 기둥 삼으사, 성도들의 본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도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군사들이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무수히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도들은 저희 부부를 차차 알지 못해갈 것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더 많은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나올 것이며, 주님께서 찾으시고 귀히 쓰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낳는 교회로 이끄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부부는 계속 기도하며, 저희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두 아이 온유와 주언이도 부모따라 캄보디아에서 13년 가까이 지내며, 보고 들을 것, 느낀 것들이 그들의 삶에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온유와 주언이를 부르사, 부모보다 더 귀한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온유는 지난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 연설 Valedictorian 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2 학년을 잘 마쳐 준 딸이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온유는 가을에 뉴욕대 경영학과 NYU, Stern School of Business 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비를 장학금으로 받았고, 기숙사비를 위해 여러 장학금을 알아보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언이는 캄보디아에서 11 학년을 마쳤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12 학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온유 주언이의 새로운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제부터 더욱 친밀히 동행하실 하나님께 두 아이의 장래를 올려드립니다.

파송교회로 돌아가 부목사로 섬기는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와 성도를 더욱 깊이 품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캄보디아 선교에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쓰는 동역서신은 이제 마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동역의 만남은 계속되어 서로 소식을 오가며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은,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제목

1. 지난 12 년 반 동안 캄보디아에서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기쁨을 받으소서
2. 리 분타 목사님과 네 명의 집사 가정들 제자교회 기둥 삼으시, 이전보다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되게 하소서
3. 온유의 기숙사비를 공급하시며, 주언이의 미국 고등학교 적응과 대학지원을 위해. 둘 다 성령의 사람 되도록
4. 새롭게 시작하는 파송교회 부목사 사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소서

캄보디아에서,  
 정지웅 은영, 온유, 주언 선교사 가정 드림

- 사역의 변화에 따라 저희 가정을 위한 선교헌금은 멈춰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